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Human Capital Investment Expenditures: A Comparison of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강 사 이 윤 금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Lecturer : Yoon Geum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연구의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human capital enhancement expenditur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se expenditures between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1990-91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7,225 married-couple and 1,391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age 18. The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human capital expenditures was the sum of four sub-components—education, reading, leisure,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Tobit analysis with a dummy variable for household type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dollars spent on human capital expendi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was significant in human capital expenditures, indicating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spent significantly less for this category than did married-couple households,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ncome from a public assistance program was associated with lesser expenditures on human capital, while social security income source was associated with greater human capital expenditur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ddition of family members between ages of 6 and 17 positively affected human capital expenditure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is usefu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work with female-headed households.

I. 서론

지난 2~3세기동안 미국사회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중의 하나는 편부모가계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970년도에 편부모와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수는 820만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1,5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편부모가계 중 87%는 편모가계가 차지하고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2). 일반적으로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에 비해 저소득층이거나 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경제상태는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편모가계에서 성장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층에 위치하게 된다(Pritchard & Williams, 1987; Richards & Schmiede, 1993). 또한 편모가계의 자녀들은 양부모가계의 자녀들에 비해 혼외자녀 출신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Marshall, 1991). 이처럼 편모가계의 증가추세와 함께 야기되는 편모가계의 자녀들의 문제를 인식할 때, 편모가계가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양부모가계의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지출비용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개인에게 내재하는 자원의 저장으로서, 개인이 학교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통해 얻은 직업경험, 특기교육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능력, 나아가 운동이나 여가선용으로 얻어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개인에게 내재해있는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증가된 소득을 부여하지만(Becker, 1975),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에는 시간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된다(Bryant, 1990). 또한 한 국가의 노동시장의 질은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출로 결정되지만(Schultz, 1961), 인적자본은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정의 기능을 통해서 개발되므로, 개개인의 인적자원개발에는 가정의 역할이 크다.

지난 30년간 경제학자들은 기계나 생산설비와 같은 물적자본의 개념을 인적자본에까지 확대시켜 왔다. 하지만, 인적자본의 가치를 개인이 성취한 정규교육의 획득으로만 측정하려 하였을뿐(Schultz, 1961), 가계에서 인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소득 및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가계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의 소비생활을 통해 파악하려한다. 따라서 미국의 가계가 그들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인적자본에 투자하는가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가계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그들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가계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정책가나 가계경제학자들에게 필요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서로 다른 집단간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종종 있었으나, 여성가장가계와 남성가장가계 또는 편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에 대한 소비패턴의 비교는 많지 않았고, 가계형태를 중심으로 인적자본증진에 관련된 소비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두 집단간의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소비지출패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편모가계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면(Pritchard & Williams, 1987), 인적자본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들의 장래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출수준을 파악하며, 이들과 양부모가 있는 가계의 지출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편모가계의 필요 또는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빈곤층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편모가계의 문제점을 역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익할 수 있다.

II. 연구의 배경

1.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행동

인적자본을 인간에게 내재되어있는 자원의 축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해왔는가를 정리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동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Schultz(1961)는 인적자본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지식, 건강과 같은 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 직장연수, 건강관리, 이주 등을 통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Mincer & Polachek(1975)은 개개인의 인적자본은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ehta(1976)는 창조성, 일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가치, 관심 또는 흥미, 태도 등을 포함시키고, 이외에도 생산능력, 경제발전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적자본들을 인적자본에 포함시켰다. DiMaggio(1982)는 음악, 미술, 공예, 재봉 등에 관련되어 개개인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도 인적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그러한 인적자본을 그는 특히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Becker(1976)는 각 개개인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 행동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로 보았다. 그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학교교육(schooling)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개인이 학교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장래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이는 결국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Becker(1976)는 학교교육을 인적자본 투자활동으로 볼 때 경제적·물리적 투자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해 주지는 않지만 장래에 지속적인 대가를 부여해 주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Bryant(1990)는 학교교육에 의해 획득한 지식과 기

술은 처음부터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 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직업 또는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이 커다란 수익(returns)을 줄지라도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개인은 학교교육에 투자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수익율과 비용(costs)이 동일해질때까지만 학교교육에 투자한다고 하였다. Bryant(1990)는 정규교육, 직장에서의 경험획득, 건강관리 등을 주목할 만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활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와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정규교육(formal schooling), 직업연수(on-the-job-training), 직장경험(work experience), 그리고 건강관리(health maintenance)를 가장 보편적인 인적자본투자와 관련된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Schultz, 1961; Becker 1976; & Bryant, 1990), 인적자본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행동들을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개인은 지식을 획득(Acquiring)하는데, 자신의 기술을 개발(Developing)하는데, 경험을 증진(Augmenting)시키는데, 건강을 유지(Maintaining)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배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킬 인적자본을 획득, 개발, 증진, 그리고 유지하려는 가계의 행동을 인적자본투자와 관련된 행동으로 정의하며, 자신과 가족원들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영역들에 지출하는 가계의 소비행동을 통해서 인적자본 투자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

<표 1> 인적자본투자에 관련된 활동

행동	인적자본의 형태	수단
획득(Acquiring)	지식(Knowledge)	정규교육과정
개발(Developing)	기술(Skills)	특기교육
증진(Augmenting)	경험(Work experience)	취업
유지(Maintaining)	건강(Health)	의사방문 의료시설이용 독서 휴가 유락시설이용

자본증진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표 1>의 수단(Means)에 해당되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조사하면서, 인적자본의 형성, 개발, 축적 및 증진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2. 가계형태를 중심으로 지출행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

가계형태를 중심으로 두 집단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있어서, 예를들어 Horton과 Hafstrom(1985)은 여성가장가계와 양부모가계간의 총식품비, 집에서만 소비된 식품비, 주거비, 기타가계운영비, 피복비, 그리고 독서오락비에 대한 지출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장가계는 양부모가계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독서오락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여성가장가계의 경우 가장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은 그들의 독서오락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양부모가계에서는 가족수나 가장의 연령이 그들의 독서오락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양부모가계는 독서오락비에 적게 지출하였다. 한편,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양부모가계는 임대를 하고 있는 양부모가계보다 독서오락비에 더 많이 지출을 하였다.

Abdel-Ghany와 Schwenk(1993)도 편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간의 6개 소비항목에 대한 소비패턴의 차이를 연구분석하였다. 이들 6개 항목은 총식품비, 집에서만 소비되는 식품비, 주거비, 기타가계운영비, 의복비 그리고 독서오락비로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모든 소비항목에 대해 편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가계의 소득이 편부모가정이나 양부모가정의 독서오락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흑인 편부모가정은 비흑인 편부모가정보다 독서오락비에 적게 지출하였고, 편부모가정의 가장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이 되면 가장의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편부모가정보다 독서오락비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가장의 교육수준이 독서오락비에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양부모가정도 가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서오락비 지출에 더 많이 지출하였으나, 가장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부모가정은 교육비에 적게 지출하였다.

Weiss(1984)는 이혼 또는 별거상태에 있는 편모가정의 소비패턴이 그들이 결혼하고 있던 시절의 소비패턴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편모가정의 이혼 또는 별거 후의 소득은 결혼상태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층에 있던 여성의 경우 이혼에 의해 양부모가정에서 편모가정으로 되었을 때, 주거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식품비지출도 이혼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혼 후 5년동안 식품비지출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가계형태를 중심으로 가계의 주요소비항목들을 비교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인적자본증진에 관련된 소비패턴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계의 인적자본 증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출 경향은 어떠한가?
- 2)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에 있어서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차이가 있는가?
- 3)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1990-91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인데, CES 자료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가계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서 18세미만의 자녀를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하고 있는 가계를 표집대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총 8,616 가계가 분석되었으며, 이중 양부모가계는 7,225가계이고 편모가계는 1,391가계이다. 편모집단과 양부모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소득원에 있어서 양부모집단은 자산소득이 있는

가계가 많았고, 편모집단은 정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는 가계가 많았다. 두 집단 모두 가장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가계가 많았으며, 편모집단에는 백인가계와 비백인가계가 유사하게 있으나, 양부모집단에는 백인가계가 훨씬 많았다. 한편 양부모집단에서는 자

<표 2>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일반적 특성

범 주 형 변 수	편모가계(1,391)		양부모가계(7,225)		
	N	%	N	%	
소득원:	자산소득	208	15.0	2470	34.2
	양육비소득	431	31.0	391	5.4
	연금소득	14	1.0	234	3.2
	사회보험소득	86	6.2	310	4.3
	정부보조소득	582	41.8	1013	14.0
교육수준:	고졸미만	337	24.2	1096	15.2
	고졸	537	38.6	2265	31.3
	대학중퇴	358	25.7	1670	23.1
	대졸	94	6.8	1124	15.6
	대학원이상	65	4.7	1070	14.8
가구주 인종:	백인	758	54.5	5731	79.3
	비백인	633	45.5	1494	20.7
가구주 직업:	전문/관리직	653	46.9	3402	47.1
	기타직업	738	53.1	3823	52.9
주택소유 여부:	자가	452	32.5	5307	73.5
	임대	939	67.5	1918	26.5
연 속 변 수	평균	S.D.	평균	S.D.	
가계소득(\$)	4,491.6	3,856.1	9,082.6	6,065.5	
가구주 연령(세)	34.7	8.4	37.2	8.3	
대학생 가족원 수(명)	0.1	0.3	0.1	0.4	
학령전 여아수(명)	0.3	0.6	0.3	0.7	
학령전 남아수(명)	0.2	0.6	0.4	0.7	
학령기 여학생수(명)	0.6	0.9	0.6	1.0	
학령기 남학생수(명)	0.7	1.0	0.6	1.0	
18~23세 여자수(명)	0.1	0.3	0.1	0.4	
18~23세 남자수(명)	0.1	0.3	0.1	0.4	
23~29세 여자수(명)	0.1	0.3	0.2	0.5	
23~29세 남자수(명)	0.1	0.3	0.2	0.5	
30~65세 여자수(명)	0.4	0.5	0.8	1.0	
30~65세 남자수(명)	0.4	0.5	0.9	1.0	
여성>65세(명)	0.004	0.07	0.02	0.2	
남성>65세(명)	N/A		0.01	0.1	

가를 소유한 가계가 많았으나 편모집단에서는 임대 한 가계가 많았다.

두 집단간에 소득을 비교해보면, 편모집단의 소득은 양부모집단의 가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양부모집단이 편모집단보다 약간 많았다. 대체로 모든 연령층의 가족원이 편모집단보다 양부모집단에 많았던 반면 학령기의 남학생수는 편모집단이 양부모집단보다 약간 많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경향은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실증적 모델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모든 변수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종속변수인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소비항목에 대해 가계에 따라서는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Tobit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따라서 Tobit 분석방법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특히 편모 가변수를 포함한 가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인적자본투자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4.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가계의 인적자본투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교육비, 독서비, 오락휴가비, 그리고 건강관리비 항목에 3개월간 지출한 비용의 합을 인적자본투자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소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교육비 항목에는 정규학교 및 기타학교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특히 교육을 위해 지출된 교습비, 학교에 관련된 책, 문방기구 등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항목에서 아동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

출한 비용은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이기보다는 취업에 관련된 비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서비: 인적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독서비항목이 포함되었는데, 개인은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들을 구독함으로써 정보를 얻어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되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지출된 화폐량을 측정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행동을 파악하였다.

오락휴가비: 이 항목은 음악회, 스포츠관람, 유락시설이용, 여행 및 여가선용에 지출된 비용을 합한 것인데 이러한 항목들에 지출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나아가 신체적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오락휴가비항목에 지출한 화폐량을 측정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행동을 파악하였다.

건강관리비: 개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산력도 증가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사방문하는 것도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지출로 보았다.

2) 설명변수

실증적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계형태: 본 연구의 초점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두 집단간의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는데 있으므로 가계형태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소득: 영구소득에 대한 근사치로 가계의 총지출을 실증적모델에 포함시켰는데,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설아래 소득을 제곱시킨 변수도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인적자본투자비와 가계소득간의 곡선적 상관성(curvilinear relationship)을 파악하였다.

연령: 연령변수는 편모가계의 경우는 편모자신의 연령, 양부모가계의 경우 부인과 남편의 연령의 합을 2로 나누어 각각 가장의 연령을 대표하게 하였

다. 소득의 경우와 같이 연령과 인적자본투자비의 곡선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연령제곱도 모델에 포함시켰다.

대학생수: 인적자본이론을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다른 교육수준, 예를 들어 고등학교졸업 수준에서 얻은 지식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준다고 주장한다(Schultz, 1961; Bryant, 1990). 따라서 대학에 다니는 가족원수와 인적자본투자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가계의 인적자본투자행동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수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고 이 변수는 대학에 다니는 가족원이 몇 명인가로 측정되었다.

성별/연령별 가족구성원: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출은 가족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성별을 조합시킨 12개의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12개의 설명변수들은 6세미만 여자수, 6세미만 남아수, 6~17세 사이의 여자수, 6~17세 사이의 남자수, 18~22세 사이의 여자수, 18~22세 사이의 남자수, 23~29세 사이의 여자수, 23~29세 사이의 남자수, 30~65세 사이의 여자수, 30~65세 사이의 남자수, 65세 이상의 여자수, 그리고 65세 이상의 남자수이다. 특히 이러한 성별/연령별 가족구성원 변수들은 가족생활주기를 나타내며 각 단계에서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다양한 소득원: 전남편으로부터 받는 자녀양육비로 인한 소득여부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수준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eller, 1995)에 기초하여 자녀양육비로 인한 소득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써, 자산, 개인연금, 사회보험, 그리고 정부보조로부터의 소득여부를 나타내주는 5개의 가변수들을 실증적 모델에 포함시켜서 인적자본투자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가장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고졸미만, 고졸, 대학종퇴, 대졸, 대학원이상이라는 5개의 가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었고, 가장의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가계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지출을 다른 교육수준의 집단들

과 비교하였다.

인종: 인종은 크게 백인과 비백인으로 나누었는데, 백인집단에 스페인계의 백인은 제외시켰고, 비백인집단에는 아시안, 흑인, 인디언, 스페인계의 인종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비교집단인 비백인 가계와 백인 가계의 인적자본 증진과 관련된 지출을 비교하였다.

자가소유: 자가소유의 변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자가1은 은행대출이 있으면서 자기집을 소유한 가계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자가2는 은행대출 없이 자기집을 소유한 가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임대는 자기집이 아닌 남의 집을 임대하여 사는 가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임대집단과 다른 자가소유 집단간의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지출을 비교하였다.

직업유형: 가장의 직업형태는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과 그외의 다른 직업에 속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장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인 가계와 기타직업 가계간의 인적자본 증진과 관련된 지출을 비교하였다.

거주지역: 도시지역을 동부, 서부, 중부, 그리고 남부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을 명시하는 거주지역 가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각각의 지역에 속한 가계와 비교집단인 농촌가계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행태와 비교하였다.

보험유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인적자본투자비는 교육비, 독서비, 오락휴가비, 건강관리비 항목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건강보험유형이 건강관리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유형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조사분기: 본 연구에 사용된 1990-91년 CES 자료는 5 분기(5 quarters)를 합한 자료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분기를 명시해주는 조사분기 가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적자본투자과 관련된 지출이 계절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달: 각각의 조사분기 내에서, 가계가 어느 달에 조사에 임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는 어느기간에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추론하게 해주므로, 조사에 응답한 달을 명시해주는 조사달 가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변수들 중에서 보험유형, 조사분기, 조사달

은 인적자본투자행동에 이해하기 위한 설명변수이기 보다는, 통제변수로서 실증적 모델에 포함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일반적 지출경향

〈표 3〉에는 인적자본투자에 관한 가계지출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총가계의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지출은 3개월 평균 \$487이었고, 특히 편모가계는 3개월 평균 \$223, 양부모가계는 3개월 평균 \$538이었다. 소항목들은, 교육비 항목의 경우 양부모가계는 편모가계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많이 지출을 하였고, 스포츠나 예술과 관련된 개인 수업비에 양부모

가계는 편모가계보다 2배 이상을 지출하였다. 독서비, 오락휴가비, 건강관리비에 있어서도 양부모가계는 편모가계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였다. 또한 〈표 3〉은 소항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세한 항목들에 대한 가계의 지출도 보여주고 있다.

2.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Tobit 분석결과

〈표 4〉는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Tobit 분석결과를 제시해준다. 종속변수는 4개의 소항목들인 교육비, 독서비, 오락휴가비, 그리고 건강관리비에 지출한 것을 합한 총액수를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면, 편모가계 가변수의 계수가 (-)를 나타내는데,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표 3〉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지출

지출항목	총가계(n=8,616) 평균 (SD)	편모가계(n=1,391) 평균 (SD)	양부모가계(n=7,225) 평균 (SD)
인적자본투자비:	\$486.8(1009.7)	\$223.1(881.3)	\$537.6(1024.9)
교육비:	\$156.1(587.7)	\$ 85.8(507.9)	\$169.6(600.9)
공교육비	\$128.8(570.3)	\$ 73.3(500.7)	\$139.5(582.1)
art/sport 레슨비	\$ 27.3(95.5)	\$ 12.5(80.6)	\$ 30.1(97.8)
독서비:	\$ 34.1(69.8)	\$ 13.8(35.7)	\$ 37.9(73.9)
책/백과사전	\$ 6.2(47.1)	\$ 2.2(20.8)	\$ 6.9(50.6)
신문	\$ 12.7(21.3)	\$ 5.1(11.9)	\$ 14.1(22.4)
잡지/정기간행물	\$ 6.5(19.1)	\$ 2.8(12.1)	\$ 7.3(20.0)
기타도서	\$ 4.8(27.1)	\$ 2.5(15.0)	\$ 5.2(28.8)
회원가입	\$ 3.9(24.0)	\$ 1.2(9.6)	\$ 4.4(25.8)
오락휴가비:	\$ 69.0(184.9)	\$ 27.2(125.6)	\$ 77.0(193.2)
레코드/CD구입비	\$ 2.5(19.7)	\$ 0.7(6.4)	\$ 2.8(21.3)
음악회	\$ 14.3(45.9)	\$ 7.9(28.5)	\$ 15.6(48.5)
스포츠관람료	\$ 4.1(26.0)	\$ 0.5(6.3)	\$ 4.8(28.2)
스포츠활동비용	\$ 21.1(116.1)	\$ 6.6(66.8)	\$ 23.9(123.2)
여행중 유락시설	\$ 21.6(90.9)	\$ 7.9(43.2)	\$ 24.2(97.2)
여행중 스포츠	\$ 5.4(48.2)	\$ 3.6(64.7)	\$ 5.7(44.3)
건강관리비:	\$227.8(699.6)	\$ 96.3(637.6)	\$253.2(708.2)
병원이용	\$ 99.9(572.0)	\$ 46.4(612.4)	\$110.2(563.4)
기타 의료시설이용	\$ 20.5(117.1)	\$ 9.0(72.5)	\$ 22.7(123.8)
안과/치과 이용	\$ 71.6(272.9)	\$ 26.7(92.0)	\$ 80.3(294.4)
약국/의료기구구입	\$ 35.8(93.7)	\$ 14.2(46.4)	\$ 40.0(99.8)

〈표 4〉 가계의 특성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N = 8,616)

독립변수	인적자본투자비 Coefficients(S.E.)	독립변수	인적자본투자비 Coefficients(S.E.)
<u>가계유형변수</u>		<u>교육수준(고졸미만)</u>	
편모가계	-86.92* (46.605)	고졸	183.604*** (34.056)
<u>소득변수</u>		대학중퇴	241.592*** (37.559)
소득	0.05*** (0.003)	대졸	359.528*** (43.425)
(소득) ²	8.9E-7*** (6.88E-8)	대학원이상	355.565*** (45.943)
<u>연령변수</u>		<u>인종(비백인)</u>	
연령	25.932** (11.617)	백인	214.161*** (28.009)
(연령) ²	-0.223* (0.135)	<u>주거상태(임대)</u>	
<u>대학변수</u>		대출자가소유	72.226*** (27.155)
대학생수	246.923*** (32.428)	무대출자가소유	125.383*** (42.954)
<u>성별가족주기변수</u>		<u>직업형태(비전문직)</u>	
여자<6세	5.339 (21.595)	전문직	-2.896 (24.243)
남자<6세	-14.853 (21.621)	<u>거주지역(농촌)</u>	
여자 6~17세	35.394** (15.882)	도시동부	37.045 (39.226)
남자 6~17세	50.349*** (15.521)	도시중부	57.497 (37.468)
여자 18~22세	4.434 (30.101)	도시서부	45.732 (39.784)
남자 18~22세	20.312 (30.445)	도시남부	131.02*** (37.500)
여자 23~29세	-11.483 (32.637)	<u>건강보험유형</u>	
남자 23~29세	15.781 (32.126)	Blue보험	69.076** (31.031)
여자 30~65세	-28.660 (32.612)	일반보험	36.302 (24.048)
남자 30~65세	-26.181 (33.782)	치과보험	97.062** (47.829)
여자>65세	52.228 (49.438)	HMO보험	-67.886** (34.561)
남자>65세	322.534*** (82.895)	<u>조사분기(1990 1분기)</u>	
<u>소득원변수</u>		1990 2분기	96.590*** (32.366)
자산소득	5.080 (23.530)	1990 3분기	134.608*** (32.384)
양육비보조소득	35.437 (37.833)	1990 4분기	174.449*** (32.615)
개인연금소득	-91.589 (63.480)	1991 1분기	79.892** (32.635)
사회보험소득	135.596** (57.378)	<u>조사달(첫째달)</u>	
정부보조소득	-106.41*** (30.017)	두번째달	57.744** (25.261)
		세번째달	64.803*** (25.173)
상수	-1412.507*** (224.879)		
Likelihood ratio	-61959.91		
Chi-square(df=45)	3562.72***		

* p < .10 ** p < .05 *** p < .01

비해 인적자본증진을 위해 그들의 재정적 자원을 덜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득과 인적자본투자비와의 관계를 보면, 소득과 소득제공 둘 다 (+)를 보여주는데, 특히 소득제공의 계수가 (+)임은 소득과 인적자본투자비의 관계는 직선적 상관관계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 (+)는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율로 지출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연령과 연령제공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 (-)의 영향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은 가장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겠지만, 가장의 연령이 대략 58세정도되면, 그때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투자와 관련된 지출은 줄어든다는 Jang(1995)의 연구결과에서 뒷받침될 수 있다.

예상한대로, 대학변수는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에 (+)의 영향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가계내에 대학에 다니는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출이 늘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와 성별을 반영해주는 12개의 연령/성별구성원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켰는데, 이 중 6~17세 여자구성원, 6~17세 남자구성원, 그리고 65세<남자구성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정규학교교육을 받는 시기인 6~17세에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남자노인이 많을수록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을 보였는데, 이것은 가계에 남자노인의 수가 늘수록 건강관리비에 지출이 증가되어 이것이 소항목의 합인 인적자본투자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양한 소득원의 유무가 인적자본투자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산소득, 양육비보조소득, 개인연금소득, 사회보험소득, 정부보조소득 등 5개의 소득원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켰는데, 이 중 사회보험소득은 (+)의 영향력을 정부보조소득은 (-)의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정부보조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이로써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

한 소득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장래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비항목으로 지출되기 보다는 현재 그들에게 필요로되는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가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가장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가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가장의 교육수준이 높아갈수록 가장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 비해,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지출에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할애함을 의미한다.

백인가계는 비백인가계보다 인적자본 증진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하였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도 임대하여 사는 가계보다 인적자본 증진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하였으나, 가장의 직업은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4개의 가변수들 중 오직 도시남부에 거주하는 가계만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인적자본 증진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항목중의 하나인 건강관리비는 건강보험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봄으로, 가계가 이러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건강보험 가변수들과 소항목들의 합인 인적자본투자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아중 세 개의 변수(Blue보험, 일반보험, HMO 보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끝으로, 조사분기를 나타내는 조사분기 가변수와 조사달을 나타내는 조사달 가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비교분기나 비교달에 비해 각각의 기간에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지출이 많았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예를들어, 1990년 1월~3월 조사에 응답한 가계보다 1990년 10월~12월 조사에 응답한 가계는 인적자본투자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참고로 CES자료수집에 있어서 각 가계는 인터뷰에 응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가계지출을 보고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정규학교교육에 대한 수업료나 기타 학교에 관련된 비용이 10월~2월 기간보다 7월~11월 기간에 더 많고, 오락 휴가비의 경우, 겨울보다는 여름기간에 더 많이 지출하는 계절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 Jang

(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 가계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 수준을 밝히고,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지출이 다른가를 보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0-91년도 CES 자료에 의하면, 미국가계는 총지출의 5.8%를 인적자본 증진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특히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에는 가계 총지출의 1.9%를 할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 총지출의 9.5%를 교육비에 할애하는 한국의 교육비 지출실태(통계청, 1994)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현 한국의 교육비문제를 고려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보다 구체적인 교육비실태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교육관련 정책들이나 학생들에게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한편 두 집단간의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 소비항목의 평균을 비교할때 편모가계가 3개월 평균 \$223을 지출한 반면, 양부모가계는 3개월 평균 \$538로서 편모가계는 인적자본증진을 위해 양부모가계 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출하였다¹⁾. 또한 Tobit 분석방법으로 가계형태가 인적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에 비해 인적자본증진을 위해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 또는 남편의 부재가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가계소비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가 가계경제학자들이 편모가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원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미국가계는 학령기인 6~17세 사이의 자녀수가 늘수록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자

녀가 많을수록 정규학교나 기타 개인교습에 관한 가계의 지출이 늘게되며, 6~17세 연령층의 가족구성원이 늘수록 오락휴가비에 대한 지출이 늘게됨으로써 총 인적자본투자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남자노인수가 늘수록 인적자본증진과 관련된 지출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의 획득, 증진을 위한 투자로 인해 늘어난 지출이라기 보다는 남자노인이 많을수록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지출이 늘게됨으로써 인적자본투자비가 늘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성 65세 이상이 아닌 남성 65세 이상의 구성원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기존의 연구들이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주기변수와 인적자본투자비 지출과의 상관성은 각 단계의 가정의 요구와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관련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소득보조정책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가변수인 정부보조소득과 인적자본 투자비와의 상관성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정부보조소득이 있는 가계는 정부보조소득이 없는 가계에 비해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항목에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부보조소득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취업을 원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직장을 구할수 있을 뿐 아니라 고임금과 고용주가 배려해주는 피용자편익(employee benefits)을 고용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Bryant, 1990), 저소득층 가계가 현재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을 늘린다면 그들의 장래의 소득이 증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의 이러한 소득보조정책이 인적자본투자에 기여를 하지못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으므로 소득보조정책에

1) 이러한 지출실태는 편모가계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이 가계 총지출의 4.1%를 차지하는 반면, 양부모가계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지출은 가계 총지출의 5.9%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Jang, 1995).

있어서의 보완 및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빈곤층의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정부정책가나 가계경제학자들에게 현재 소득보조정책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소득이 인적자본의 형태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소득보조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실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특히 정부보조소득이 있을 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로부터의 소득보조가 어떠한 소비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소득보조를 받는 가계에 대한 소비패턴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가계의 인적자본투자 행동을 그들의 지출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려 했으나, 단지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소비지출항목을 측정함으로써 가계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행동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들어, 인적자본축적을 위해 소비지출을 통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시간적 투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 독서, 휴가, 건강관리에 대한 활동들은 어느면에서는 시간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어떤 활동들은 단지 시간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 또는 운동하기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CES자료로는 단지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므로, 시간적 투자와 같은 다른 측면으로 축적될 수 있는 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분석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했으나, 가족구성원 중 누구의 인적자본증진을 위한 투자였는지는 조사되지 못했다. 즉, 부모의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투자였는지, 자녀를 위한 투자였는지, 아니면 기타 가족원에 대한 투자였는지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증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구성원 중 누구를 위해 가계의 재정적 자원이 투입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가계의 인적자본투자행동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장래의 연구에서 조사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편모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들의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교육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이러한 영역들에 인적자본 투자행동이라는 분야를 추가시킴으로써, 편모가계의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울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연구가 단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소비패턴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했으나,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예를들어 이혼모, 별거모, 사별모, 그리고 미혼모등으로 편모가계의 형태를 더 세분화 시켜 이들 집단들간의 인적자본투자행동을 비교 분석한다면, 정부정책가들이 편모가계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1994), 도시가계연보.
- 2) Abdel-Ghany, M. and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Winter, 299-315.
- 3) Becker, G.(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 Becker, G.(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5) Beller, A.(1995), Child support and children's well-being,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 25-32.
- 6) Bryant,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7) DiMaggio, P.(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 on the grades of U.S.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189-201.
- 8) Horton, S. and Hafstrom, J.(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3), 292-303.
- 9) Jang, Y.(1995), *Human capital-enhancing expenditures: A comparison of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10) Marshall, R.(1991), *The State of Families 3: Losing Direction Famil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Wisconsin: Family Service America..
- 11) Mehta, M.(197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and the Far East*, Calcutta: The MacMillian Company of India, Limited.
- 12) Mincer, J. and Polachek, S.(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576-588.
- 13) Morgan, L.(1991), *After Marriage Ends: Economic Consequences for Midlife Women*,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14) Pritchard, M. and Williams, F.(1987), Determinants of resource constraints experienced by one- and two-parent low-income households, in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3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214-220.
- 15) Richards, L. and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16) Schultz, T.(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17) U.S. Bureau of the Census(1992), *Statistical Abstracts of the United States: 1992*(112th edi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8) Weiss, R.(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 15-127.